



임채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생산자책임재활용 (EPR)제도

운영 10년을 맞아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추울 것이라 한다. 지구 온난화로 모두가 지구의 온도상승으로 따뜻한 겨울을 예상하였는데, 갑작스런 추위로 환경가족 여러분의 포근한 겨울나기 지혜가 필요하리라 본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적게 발생하도록,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생산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함에 있으며, 출고량에 따르는 의무량을 재활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의무생산자가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제도로 2003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제도이다.

2012년도는 EPR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써, 그 간(2003~2011년) 9년 동안 EPR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제도운영 성과 분야 관련해서 EPR품목은,

'03년도에는 포장재(4종), 제품(11종) 등 총 15종이었으나, 꾸준히 대상품목을 늘려 '12년도에는 포장재(4종), 제품(21종) 등 총 25종이나, 이 중 전기·전자제품(10종)은 '08년도부터 환경성보장제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 수는 '03년도에 의무생산자(2,747개소), 재활용사업자(418개소)에서 2012년도에는 의무생산자(4,667개소), 재활용사업자(643개소)로 각각 의무생산자(69%↑), 재활용사업자(53%↑) 증가를 보이고 있다.

EPR 시행 전,후 출고량 대비 재활용량을 보면,

'02년도에 출고량(2,311천톤), 재활용량(938천톤)에서 '12년도에는 출고량(2,649천톤), 재활용량(1,533천톤)으로 각각 출고량 증가(338천톤, 14%↑), 재활용량 증가(595천톤, 63%↑)를 보여,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률 제

고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로 나타났으며, 포장재와 제품의 출고량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2%~16%)이었으나, 재활용률에 있어서는 제품군(15%~65%)이 포장재군(30%~80%)보다 15%~65%p 낮은 수치를 보여, 앞으로 제품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만 연도별 전체 재활용 의무량에 대한 전체 의무 이행률은 매년 100% 초과 달성하므로써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녹색성장 발전에 큰 기여하였다.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도 효과에 있어,

제도 시행 9년간 EPR 대상품목을 총 1천2백만 톤을 재활용하여 총 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가져왔으며, 총 5조 1천4백억 원의 경제적 편익발생, 총 8,570 명을 고용 창출하였다.

위와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재활용을 고려한 재질·구조 개선을 시행한 의무생산자, 글로벌 위기에 따라 재활용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불철주야 재활용률을 높인 재활용사업자,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중간에서 역할을 다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품 분리배출한 온 국민의 노력의 결실이며, 향후 제품군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은 EPR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이 충실히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체의 의견 수렴 적극화, 재활용 기반 조성, 제도개선 등 가일층 노력으로 모든 국민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글로벌 환경 종합전문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다.

癸巳年 새해에

환경인 여러분의 행복과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